

“우리가 광주정신 계승”... 2野 적통경쟁 불꽃

더민주 “기념식 국민행사로”
국민의당, 제창 거부 靑 맹비난

아권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을 맞아 아권의 심장부인 광주로 총출동, ‘광주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치열한 호남민심 쟁탈전을 펼쳤다. 아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정부를 앞다퉈 비난하며 서로 광주 정신을 계승할 정당임을 자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 전원이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고, ‘광주정신 계승’을 앞세워 호남에 구애를 펼쳤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경제적 자유 확대와 최소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리 더민주가 광주정신을 계승해서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의 피로써 쟁취한 것”이라며 “금세기 21세기에 그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월 정신을 충실히 담아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더민주는 앞으로 당, 국회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의례적 행사에서 벗어나 오월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는 전 국민의 행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기념사 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하라’는 피켓을 들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더민주가 광주정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야당 전통을 계승하고, 호남 적통이란 점을 각인시키려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표도 17일과 18일 이틀간 광주를 찾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4·13 총선에서 광주 ‘8석’을 석권하는 등 호남 완성을 거둔 국민의당은 텃밭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날인 17일 전북을 들른 뒤 광주를 찾은 안 대표는

18일 광주·전남 언론사 대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제가 광주 전남에 와서 드린 약속들이 있다”면서 “그 말씀들을 꼭 지키겠다”고 말하며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기념식을 마친 뒤 광주 시내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는 행사에 참여했으며, 오후에는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소록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의 처벌을 위한 법안도 제정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회동에도 불구, 광주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거듭 사과한 뒤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 시민과 국민이 원하고 그 명령들을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약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날 5·18 기념식을 찾아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손 전 고문은 “여기에 매년 왔다. 그리고 제가 살고있는 강진이 바로 이웃이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요구

했다. 그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5·18의 뜻은 시작이다. 각성의 시작이자 분노와 심판의 시작이다. 또한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기도 하다”며 “지금 국민의 요구는 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새판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손 전 고문은 광주에서 이계호·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 당선인 등 측근들과 점심을 함께한 뒤 강연을 위해 일본행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비박 “함께 못 가”... 친박 “싫으면 떠나야”

새누리 계파 갈등 최고조... 김용태 오늘 중대 선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무산으로 내용에 휩싸인 새누리당에 분당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총선 참패 이후 ‘자숙 모드’를 이어온 주류 친박(친박근혜)계가 다시 전면에 나서 비주류 일색의 비대위와 혁신위원장 선출을 무산시키는 위력을 과시함에 따라, 앞으로 친박과 비박(비박근혜)계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친노(친노무현)계와 비노(비노무현)계로 나뉘어 싸우다 분당만 아담처럼 새누리당 역시 친박과 비박의 ‘동거’가 점점 힘들어지는 분위기다.

한 비박계 의원은 18일 “아무리 비박계 임시지도부가 싫었다고 해도 친박계가 이처럼 지도부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킨 것은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며 “앞으로 친박계와는 함께 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가 친박 측의 비토로 물러난 김용태 의원은 “그들(친박)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할 정도로 비장하다.

김 의원은 19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그 내용은 함구했다. 주변에선 친박계에 대한 선전포고,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 계파에 대한 반감은 친박계 안에

서도 감지된다. 친박 핵심인 김태보 의원은 “분당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는 옛말처럼 정당은 이념과 생각, 목표와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 출범 무산 사태와 관련, 입을 굳게 다문 채 당 상황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대표 백양사 방문...광주정신 화두로 대화

지선스님 “5·18 정신은 대동세상”

제36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루 전인 지난 17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만남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지선 스님은 ‘불교정도구원 전국승가회 의장’, ‘5·18 민중항쟁 기념사업회 의장’, ‘6·10 항쟁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맡는 등 불교계의 대표적 재야 운동권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중도 성향인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이 주목됐다.

이날 만남이 이뤄진 것은 안 대표 측의 꾸준한 요청도 있었지만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안 대표가 5·18 정신의 함의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선 스님의 의중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지선 스님은 이날 안 대표에게 “5·18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안 대표가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라고 대답하자 “맞는 말이지만은 궁극적으로 5·18 정신은 대동정신과 대동세상으로 향한다”고 강조했다.

지선 스님은 “대동정신은 자유, 민주, 평화, 평등, 통일의 대동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5·18 정신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 세계를 관통 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3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다 담아야 가야하지만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안 대표는 사자성어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사이 좋게 지내되 소신을 잃지 않는다)’을 언급하며 “국회에 들어오니 ‘화이’하다보면 ‘부동’이 어렵고, ‘부동’하다보면 ‘화이’가 어렵다”며 제3정당으로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안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번국절에 와 있는 것 같다. 잘 하면 좋은 길로 가고 잘못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 창당 가능성 시사

5·18 기념식 후 언론인 간담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치 결사체’로 세간에서 불리는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기 종료 후 당분간 새누리당에 복당해

달당 등 거취를 고민할 뜻도 비쳤다. 정의화 의원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국회의원은 안해도 정치는 계속하겠다”며 “올해 10월까지(결사체가) 정치그룹이 될지, 정당이 될지, 정당이라면



어떤 형태일지 등 기존 정치 지형과 무관하게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면 (별도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자동

으로 입당이 된다”며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장이 됐으니 (당)에 안 든다고 안 가겠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다만 “새누리당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탈당할지 고민하겠다. 공천때부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20년 인생을 투자하고 지분있는 곳이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최권일기자 cki@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학, *High five in GHU*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중간평가

‘계속지원대상’ 대학 선정

광주보건대학교
GWANGJU HEALTH UNIVERSITY